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1.(수) / 총 3매 (본문 3)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자	과장 김유인, 사무관 김대성, 주무관 송영란 ☎ (044) 201-4025, 4023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4. 1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1.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공급 숨통...5월부터 신규 허가 사업자 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 없이 허가...서비스 향상일자리 창출 기대

-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.5톤 미만 소형 택배 집·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택배용 화물자동차(영업용 '배' 번호판) 신규 허가를 위한 「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, 매년 10%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.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.

* 택배 성장률(전년 대비, %): ('04) 17.9 ('08) 16.9 ('12) 8.2 ('16) 12.7

- 그러나,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.

*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: 407건('15) → 655건('16) → 762건('17)

-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'13~'16년 기간 동안 **택배용 차량 2.4만대를 허가**하였으나, **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.**

* '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8,560대로 적정수요 39,951대에 비해 11,391대(28.5%)가 부족('17년 영업용 화물차 수급분석 결과, 한국교통연구원)
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*하였으나 앞으로는 **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**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** 예정으로 영업용 **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** 전망이다.

* '13년 13,500대, '14년 12,000대

** '17년 기준 CJ대한통운, 로젠, 롯데, 한진, 경동, 대신, 천일 등 15개사

- 한편,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**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*는 엄격히 처벌된다.**

* 1차: 사업정지 10일, 2차: 사업정지 20일, 3차: 허가취소

- 향후,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**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** 예정이다.
-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여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,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대성 사무관(☎ 044-201-40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